

2023년 3월 5일

헌시과 섬김의 달
만남과 나눔 주간

건강한 믿음(신앙)의 성장

“생기야 사방에서부터 와서....
살아나게 하라.” 에스겔 37:9

꿈이 있는 교회

섬김이 있는 교회

어제보다 오늘 더 행복한 교회

신령과 진정으로 하나님께 드리는 최선의 주일예배

	<p>환영과 축복 사역과 소식 (교회 / 교우)</p>
하나님 앞으로	<p>찬양과 경배 / 찬양팀과 함께 예배기도 / 김훈테 집사 주님 가르치신 기도</p>
말씀과 결단	<p>성경말씀 고린도전서 13:16 “우리는 지성소입니다.” 말씀선포 / 김성배 목사 결단의찬송 / 463장 - 신자 되기 원합니다 (통일찬송 가 518장) (결단의 기도)</p>
헌신과 열매 (봉헌 / 나눔)	<p>봉 헌 / 구은강 집사, 최내권 집사 * 봉헌찬송 / 213장 - 나의 생명 드리니 - 4절 (통일찬송 가 348장)</p>
삶과 세상으로	<p>* 찬 양 /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만남을 * 축복기도 / 김성배 목사</p>

* 표는 모두 일어 셉니다

예배시간 10분전 휴대전화 점검과 목상으로 준비합니다.
진정한 예배는 교회문을 나서는 순간부터 시작 됩니다.

금요 찬양예배

찬양과 기도

말씀 : 김성배 목사 / 베드로후서 3:8-12

하나님의 경고를 기억하자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하나님 나라

섬김의 교회를 방문하신 분들을 하나님의 사랑으로 환영합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예배후 주일 천교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성도의 교제에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사역 / 행사

3월 "헌신과 섬김의 달"

하나님의 은혜를 섬김과 사랑으로 표현하는 교회와 성도가 됩니다.

2023 주제 말씀 : "생기를 너희에게 들어가게 하리니, 너희가 살아나니라."

2023 표어 : 성장하는 교회

1. **만남/나눔 주간**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으로 충만하여, 하나님의 사랑과 축복을 삶에서 나눕시다.
2. **목회 심방과 상담** 심방이 필요한 교우는 **교우 사역**에 알려 주십시오.
3. **사순절** 올해 사순절은 2월 22일부터 4월 8일 까지입니다.
예수님의 은혜를 되새기며 근신과 감사로 제자된 삶을 점검하는 기간입니다.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마가복음 8:33)
4. **Oikos 사역** 주일 다음 주일 저녁은 셀 모임으로 모입니다.
삶을 신앙으로 세우는 사역을 위해 힘 쓰며, 기도 제목을 **교우 사역팀**에 알려 주십시오.
5. **화요 성경공부(저녁 8:30 zoom 모임)**
주제: **가스펠 프로젝트**, 인도: 김윤경 사모
6. **금요 찬양예배** 경배와 찬양이 넘치는 예배로 변화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임재와 은혜를 경험하는 예배가 되도록 찬양섬김이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7. **성경공부와 기도모임** 말씀과 기도는 영혼의 생명줄입니다.
모두 참여합니다.

▶ **3월의 사역**

- 만남/나눔 주간(5-10)
- 성장/성숙 주간(11-17)
- 소금/빛 된 주간(18-25)
- 선교 주일/사역 천교(26)
- 선교 주간(26-4/1)
- 종려 주일(4/2)
- 고난 주간(4/2-8)
- 사순절(2/22-4/8)
- 부활 주일(4/9)

◦ 3월 생일축하 ◦

Happy
Birthday
To You

생일축하합니다~♥

김성배(2) 김윤경(11)



말씀 개요

우리는 지성소입니다. / 고린도전서 3:16

성전은 하나님을 만나는 곳

- 다윗은 평생 성전을 건축하기를 소망했다.
- 솔로몬은 하나님의 이름을 두신다는 약속으로 감격하며 감사했다.
- 다니엘은 일생 바라보았던 하나님의 집이었다.

실은 우리가 성전, 지성소이다.

- 성령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 내재 때문

지성소답게 남은 인생을 살아가야 한다.

성령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자.

말씀 요약

우리는 지성소입니다. / 고린도전서 3:16

사순절 둘째 주일, 우리는 성령 하나님이 거주(내재)하시는 성전이 됨을 재확인 해야 한다. 당신은 자신이 하나님의 집이며, 성령 하나님이 내재하심을 확신하는가.

성전은 하나님을 만나는 거룩한 집이다. 하나님으로부터 죄를 용서받고,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장소였다. 다윗은 성전을 건축하고 싶었지만 허락되지 않았고, 아들 솔로몬에게 부탁했다. 솔로몬은 성전을 건축한 후, 하나님이 이름을 그곳에 두신다고 약속하셨기 때문에 감사했다. 불에 타서 완전히 사라졌지만, 다니엘은 바벨론에서 성전을 바라보았다.

그런데 바울은 성도 모두가 이처럼 귀한 성전이라고 선언한다. 이는 놀라운 최고의 축복이다. 기도하는 제단이 놓인 성전 뜰도 아니고, 향단, 진성상과 촛대가 놓인 성소도 아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뜻하는 언약궤가 놓인 지성소이기 때문이다. 대제사장조차 한 해에 단 하루만 들어가는 가장 거룩한 곳이 지성소였다.

우리가 지성소가 된 유일한 이유는 **성령 하나님의 임재 때문**이다.

성령 하나님이 임하실 때, 우리가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 예수님을 따르며 천국시민으로 살게 된다. 우리는 나를 위해 성자 예수님이 세상에 오셨고, 나의 모든 죄와 허물, 부정과 더러움 때문에 십자가에 죽으셨고, 승리의 삶을 살도록 부활하셨고, 구원과 영생을 완전하게 누리도록 예수님께서 다시 오심을 굳게 믿는 성도가 되어야 한다.

성전, 즉 지성소답게 살아서, 세상이 우리에게 “당신은 나와는 다르오. 당신은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삽니다.”라는 고백하게 만들어야 한다. 따라서, 우리의 고백은 실제 삶으로 이어져야 한다. 성령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으며, 주시는 말씀을 순종하며 나아 가고, 항상 깨어 있어야 한다. 당신이 인생의 주인이 되어 버리면, “나의 생각,” “나의 말과 행동”에 머무른다. 하나님께서 당신 인생의 주인이 되는 삶, 성령 성령 하나님이 거하시는 하나님의 성전으로 살아야 한다.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 빌립보서 1:27 -

성경 말씀을 머리로는 알면서 적당히 부인하며 사는 당신에게

마태복음 25장에는 어떤 사람이 타국에 갈 때 종에게 한 달란트의 금화를 주고 떠난 이야기가 나온다. 한 달란트는 은화 6,000 데나리온으로 당시 노동자의 6,000일 품삯에 해당한다. 오늘날의 화폐 가치로 치면, 일반적인 일꾼이 하루도 쉬지 않고 16년 동안 노동한 대가다.

이전에는 그 종이 단 하나 간직하고 있던 동전 한 푼이라도 잃어버리지 않고 주인에게 잘가져왔다고 생각했다. 그래서 주인의 처사가 좀 잔혹하다고 느꼈다.

그러나 주님께서 내게 첫사랑을 회복시켜주시고 난 후에 성경을 읽으니 모든 말씀이 확연히 달리 보이기 시작했다.

‘아이고, 주님이시여! 땅에 묻어둔 그 동전 하나는 바로 죽어 땅에 묻힌 그 종 자신의 영혼이군요?’

제 영혼 하나 겨우 건진 게으른 종은 주인에게 책망과 체벌을 받는다. 그 후 종은 바깥 어두운 데로 내어 쫓겨서 슬피 울며 이를 값으로 최후를 맞는다.

얼마나 많은 사람의 영혼이 오래된 동전이 되어 죄악의 오물 가득한 세상의 땅속에 파묻혀 주님과 마지막 심판의 날을 기다리고 있을까.

그러나 우스운 건, 본인은 주인을 잘 안다고 착각하며 산다는 것이다. 주인이 굳은 사람이라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헤치지 않은 데서 모은다고 오해하며 산다.

자신은 악함 가운데 적당히 게으름을 피우면서도 저 혼자서는 나름 생각하길 마땅히 갈 길을 잘 가고 있다고 여기며 사는 것이다. 같은 시간에 다른 종들은 주인을 위해 자신의 달란트의 몇 배를 남기고 있다는 사실을 모른 채 말이다.

게으른 종은 돌아온 사람이 자신의 주인인 줄 몰라서 최후 정산을 하는 날에 바깥 어두운데로 내쫓겼는가? 아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예수님이 우리 주님인 줄 몰라서 바깥 어두운 데로 내쫓기겠는가? 당연히 아니다. 우리가 주님을 안다고 생각한다고 해서 천국 문에 들어갈 수 있는 게 아니라고 예수님이 선포하신 것이다.

마귀나 귀신들도 예수님을 알았다. 2천 년 전 무덤 가운데서 살던 군대 귀신이 들린 자도 예수님이 누구인지 안다고 고백했다.

지금도 마찬가지다.

우리는 주님의 존재를 알더라도 각자의 행위에 정당한 상과 벌을 주시는 공의의 하나님을 기억해야만 한다.

주님이 농담으로 “바깥 어두운 데”(마 25:30)를 말씀하셨다고 착각하면 안 된다. 이 장소는 실제로 존재한다. 주님은 거짓말하는 분이 아니고, 없는 장소를 지어내는 분은 더더욱 아니시다.

우리는 성경 말씀을 대충 상징적으로만 예측한다. 그렇게 머릿속으로 상상만 하다가 돌연히 죽음을 맞이하는 자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른다.

우리는 성경의 말씀을 머리로는 알면서도 정작 삶에서는 적당히 부인하며 산다. ‘사랑의 주님’ 운운하며 자신의 악한 계으름을 변명하고, 보상을 정당화 시킨다. 말씀을 삶에 적용하기를 게을리한다.

만약 우리가 믿이 보이지 않는 깜깜하고 미끄럽고 우묵한 구덩이를 실제로 보았다면 절대로 지금과 같은 삶을 살지 못할 것이다. 참으로 소름 끼치게 무서운 일이다.

제시카 윤, 『동산의 샘』

기억하자.

기도는 하나님과의

나의 관계 속에서 일어나야 한다.

보여주기 위한 기도 행위가 아닌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를 하라

우리는 금식기도를 대단하게 여기지만,
그것이 자랑거리가 되면
그 기도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아니라 행위로 끝난다.

금식기도를 통해 드러지는
하나님 앞에서의 순종과 우리의 태도의 변화가 중요하다.

기도는 사람들의 인정을 받기위해 하는 게 아니다.

기도제목

1. 2023년 모든 교우가 성경읽기와 성경공부에 열심을 내도록
2. 2023년 교회 사역이 사랑과 헌신으로 열매를 맺도록
3. 다시 시작하는 Oikos 모임이 활성화되고 나눔과 회복의 통로가 되기를
4. 대학 진학을 준비하는 자녀(혜영)와 그 가정을 위해
5. 중학교를 마치고 고등학교로 진학할 자녀들(강현, 민성, 준하)의 학업과 신앙성장을 위해
6. 장성한 자녀들의 직장 생활과 타지에서의 안전, 그리고 믿음의 배우자를 위해
7. Youth 사역자 Jacob 전도사님과 New Life Church와의 joint ministry를 위해
8. 각 가정의 화목과 건강, 부모님의 건강을 위해
9. 직장에서의 부당한 대우로 고통받는 가정과 경제적 회복을 위해

예배 섬김이

주일예배기도 - 3월 5일 / 김훈태 집사
3월 12일 / 박진성 집사
3월 19일 / 구 민 집사
3월 26일 / 최선운 집사

주일헌금위원 - 3월 5일 & 12일 / 구은강 집사
최내권 집사

3월 19일 & 26일 / 최선운 집사
박진성 집사

주일안내위원 - 3월 / 김훈태 집사

교회를 섬기는 분들 LEAD PASTOR **김성배 목사**
WORSHIP LEADER **박진성 집사**
SUNDAY SCHOOL **김태영 전도사**
(JACOB KIM)

섬김의 교회는...

- ▶ 최고의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기 위해 최선을 다합니다.
- ▶ 하나님의 사랑에 빛진 교회의 사람으로, 섬김을 기쁨으로 생각합니다.
- ▶ 하나님께서 주신 꿈을 향해 쉬지않고 성장합니다.
- ▶ 어제보다 오늘, 오늘보다 내일 더 행복한 교회와 가정, 개인의 생활을 소망합니다.
- ▶ 하나님의 나라를 모든 사역과 삶의 영역에서 세웁니다.

예배 및 모임 안내

주 일 예배 / LORD'S DAY WORSHIP : SUNDAY 12:30 PM

주 일 학교 / SUNDAY SCHOOL : SUNDAY 11:30 AM

주일성경공부 / SUNDAY BIBLE STUDIES : SUNDAY 11:00 AM

금요찬양예배 / FRIDAY SERVICES : FRIDAY 7:30 PM

새벽경건회 / EARLY MORNING DEVOTIONS : TUESDAY~FRIDAY 6:00 AM
SATURDAY 7:00 AM

성경공부 / BIBLE STUDIES : SUNDAY 8:00 PM
WEDNESDAY 7:00 PM

일대일 제자 훈련 / DISCIPLESHIP CLASSES : TUESDAY 10:00 AM

교회위치 (Our Location)



섬기는 목회자 : 김성배 목사

847-691-7846 / www.churchofservant.com

800 East Palatine Road, Palatine, Illinois 60074